

제 2전선 두날개 필리핀 선교센터

(마닐라, 마리끼나 두날개교회, U-Belt 캠퍼스 사역)



잘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결같이 기도와 물질로 연합해주시는 가족, 친구, 선후배, 전주동부 교회, 무엇보다,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귀한 청년들을 일년씩 단기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는 두날개네트워크교회 성도님과 담임목사님, 그리고 두날개선교회와 대표 김성곤 목사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행복한 연합 선교를 통해 날마다 현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마닐라, 마리끼나, U-Belt 사역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상반기 마닐라 마리끼나교회와 U-BELT 캠퍼스사역이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를 통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반기 10주 행복모임시즌을 마무리하고 정착달과 함께 7월에 있을 2019년 필리핀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행복모임 동안, 마닐라, 마리끼나 두날개 U-BELT에서는 총 149개의 행복모임(전도모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변함없이 열렸습니다. 초청주일을 포함해 10주동안 약 150여명의 새가족들이 등록 및 방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149명의 행복모임리더들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매뉴얼을 매주 숙지하고 전략대로 같은 시간, 장소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구령의 열정과 기도의 영성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는 행복한 10주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정이 복음화되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셀리더들의 행복모임을 통해 직장안에서 관계와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간증들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베스트(전도대상자)들이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성도 및 장결자들도 행복모임을 통해 다시 교회로 연결되어 정착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10주 중에, 처음으로 키즈 부터 장년에 이르는 전교인 패밀리 데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제를 이루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었으며, 행복모임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초중고 신학기 개학을 시작으로 해피스쿨과 해피키즈(전도모임) 역시, 현지 청소년 리더들과 교사들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약 40여개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매주 새가족들이 방문 및 등록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차세대 리더들이 매주 있는 훈련과 양육을 통해 교회의 일꾼,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반기 청장년 양육 훈련을 통해, 양육반이 26명 수료, 제자학교 15명 수료, 제자대학 1학기 23명 수료, 제자대학 2학기 12명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중고 신학기 개학을 시작으로 해피스쿨과 해피키즈(전도모임) 역시, 현지 청소년 리더들과 교사들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약 40여개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매주 새가족들이 방문 및 등록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차세대 리더들이 매주 있는 훈련과 양육을 통해 교회의 일꾼,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반기 청장년 양육 훈련을 통해, 양육반이 26명 수료, 제자 학교 15명 수료, 제자대학 1학기 23명 수료, 제자대학 2학기 12명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더불어, 현지 교회와 성도들은 매주 영감이 넘치는 예배와 전인적인 셀가족 모임, 열정적인 영성, 그리고 복음의 절대능력과 행복한 연합 선교를 통해 전 성도가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의 정착,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증인인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대그룹, 소그룹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여 세계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단기선교사 훈련 및 공동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처럼, 저희 선교센터는 더 높이 멀리 비상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연합을 통하여 행복한 선교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12여개의 두날개네트워크 교회를 통해 파송된 장단기 선교사와 저희 가정을 포함해 25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행복한 연합선교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에 인도단기를 앞두고 있는 현지교회 단기선교사인 아이반(Ivan)이, 단기공동체 예비훈련을 위해 저희와 함께 생활하며 단기선교사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송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뜨거운 더위에도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송교회의 일꾼과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증인 된 제자로 성장하기 양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과 사역의 현장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3.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건립 VISION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지만, 오랜 시간 부패, 가난, 약물, 음란, 우상 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며, 외국근로자 및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빠른 현대화와 세속화의 발전으로 카톨릭 문화, 정령신앙 및 전통과 구습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위해 관문도시인 마닐라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문도시인 마닐라에 위치하며 예배와 양육 및 훈련을 통해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교회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 매달 임대비와 장소의 한계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을 건축하여, 우상과 음란에 메인 청소년과 청년, 급격한 현대화 속에 방황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다 넓고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며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 부탁드립니다.

4. 두날개 필리핀 선교센터 3대 사역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센터건립 VISION

저희 두날개필리핀선교센터는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와 건강한 교회의 8대핵심가치 그리고 탁월한 선교전략을 중심으로 행복한 연합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센터로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차세대를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두날개청소년 비전캠프
- 청장년을 글로벌 리더로 훈련하는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 국제 아카데미
- 단기선교사를 탁월한 재생산 일꾼으로 세우는 훈련

이상의 3대 사역 비전을 이루기 위해 두날개 선교회를 중심으로 두 날개네트워크교회는 연합하여 센터건립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가 선교중심의 교회가 되어 보내는, 나가는 선교사를 양육, 훈련 하는 연합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 동참을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A. 선교센터 건립 기도 및 후원

1. 교회와 선교센터 건물이 두날개네트워크교회 연합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2. 센터건물건립의 모든 법적인 준비와 절차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3. 건물건립을 함께 도울 하나님 예비하신 현지인 일꾼을 보내주소서.

후원계좌: 기업 196-053841-01-162 예금주 두날개선교회

B. 가정, 교회, 공동체 기도제목

1.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2. 마닐라,마리키나두날개교회가하나 님이 디자인 하신 건강한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장단기선교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4. 김증하선교사 가정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채워지게 하소서.

후원계좌: 기업 254-043782-04-062 예금주 두날개선교회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행복한 연합선교

